섬유 산업은 인재 육성이 키(key)

- 일본 섬유 기계 학회 종합 세미나에서의 특별 강연 요약 -

일본 섬유 기계 학회가 개최한 춘계 종합 세미나에서 경제 산업성 제조 산업국 섬유과의 섬유 기획관이 '섬유 산업과 인재 육성'이란 과제로 특별 강연한 내용을 소개한다.

◎ 현재 산업 인구의 앙케이트 결과 분석

현재 산업 인구를 말하는 데 6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포인트는 2007년에 단괴(團塊) 세대가 정년을 맞게 되어 산업을 떠나게 되면 인재 육성에 관한 불안이 급증할 것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다.

앙케이트에 의하면 생산 기술의 계승에 불안을 느낀다는 기업이 약 70%였다. 그 이유는 제조 현장에서 세대 간의 갭을 지적한 회답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젊은층 인구의 급속한 감소이다. 조사에 의하면 20살에서 34살의 젊은층 인구는 2000년에 2,732만 명이던 것이 2020년까지 31%나 감소하여 1,892만 명이 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의 활력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능력 향상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젊은 층의 취업률이 낮다는 것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기업이 인재를 훈련하는 코스틀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후생 노동성의 자료를 보면, 피크인 1988년에 약 6,000억 엔이던 일본 내 기

업의 교육 훈련비가 2002년에는 약 5,000억 엔으로 감소하여, 총 노동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38%이던 것이 0.28%로 떨어지고 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중소 기업의 인재 니즈와 젊은 층의 희망에 미스매치(mismatch)가 생기고 있다. 젊은 층 사이에는 대기업 선호가 여전히 강하여 중소 기업에서 우수한 젊은 인재를 채용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교육 사정이 변화하여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지만, 기본적인 학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문과계 대학생에게 초ㆍ중학생 수준의 수학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은 대학생 수는 중국 대학생 수의 반 이하라는 데이터도 있다. 또한 네 번째 포인트와도 관계가 있는데, 대학 교육이 현재의 경제 실정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인재 격차로 생기는 공동화에 대한 걱정이다. 중국을 투자 대상이라고 본 경우에 매력은 무엇이냐라는 앙케이트에 대하여 투자한 기업 4개사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라고 대답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지 않으면 산업이 공동화 되어 갈 우려가 있다.

◎ 섬유 산업의 인재 육성 상황

섬유 산업은 우리 모두의 생활에 밀착된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는 환경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한 배경의 하나는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산업으로서는 비즈니스의 글로벌화나 IT화가 빠르게 발전하여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섬유 산업이 21세기에도 계속 산업으로서 활기를 지켜나가기 위하여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나 문화를 일본 내나 해외에 내놓을 필요가 있

다. 확실한 기술이 뒷받침해 주는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으로서 발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감성이 높고 시야가 넓은 인재를 육성하고, 비즈니스의 기술이 있는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3년 산업구조심의회의 섬유 비전 “일본의 섬유 산업이 발전하여야 할 방향과 택해야 할 정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코디네이터 인재나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의 육성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경제 산업성은 생산의 베테랑 인재의 지식이나 노하우의 활용과 산학 제휴로 젊은 인재의 육성을 위한 거점 정비, 산업계와 대학 등이 제휴하여 필요한 지식、스킬(skill)의 체계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 산학 제휴 중핵 인재 육성 사업에서는 36건의 모델 사업이 채택되어, 섬유 산업 관련으로는 “섬유 산업 제조 중핵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채택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치현(愛知縣) 비슈(尾州) 지역에서 산지 내에 있는 실에서부터 직물 제조까지의 고도 기술을 집약하여, 각 공장마다 기업의 기술력과 이의 강점을 짜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제조 현장의 중핵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 외에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중소 기업 기반 정비 기구가 조성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섬유 중소 사업자 인재 자질 향상 사업”이 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중류의 섬유 중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한 지식, 노하우,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 위한 인재의 질적 향상의 조성 사업이다.

또한 경제 산업성으로부터 패션 산업 인재 육성 기구(IFI)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각 산지의 섬유 리소스 센터의 협력을 받아 “패션 산업 인재 육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리소스 센터의 활동 상황

다음에 각 산지에 있는 섬유 리소스 센터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리소스 센터는 정보 수집 제안 사업, 조사 연구 사업, 인재 육성 사업, 전시ㆍ교류 사업 등 산지의 공동 조직으로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리소스 센터는 오사카(大阪), 하마마쓰(浜松), 이마바리(今治), 이시카와(石川), 구라시키(倉敷), 도쿄(東京)의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섬유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는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섬유 소재의 특성에 대한 강좌나 머천다이저로서 기획 제안력을 높이기 위한 강좌 등의 인재 육성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도쿄에서는 각 강좌나 섬유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산지의 그룹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상담으로 이어주는 등 성과를 점차 올리고 있다. 오사카 섬유 리소스 센터에서는 어패럴 패션 등을 배우는 강좌를 만들고, 뜻이 있는 사람만으로도 도쿄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시카와에서도 각종 강좌를 개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도록 리소스 센터가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구라시키에서도 이탈리아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하이 레벨의 기술 지도를 받아 인재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패션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니시닛뽄(西日本)에서는 최대의 콘테스트로 자라나고 있다.

이 외에 이마바리에서는 상품 개발력을 강화하고 산지 브랜드로 크게 키우고자 도쿄의 긴자(銀座)에 안테나 숍(antenna shop ; 시장 정보 수집 목적의 직영 점포)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당연히 여기서 얻은 정보나 노하우를 산지를 돌려주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